

Private Object

Jun 29 - Aug 10, 2022
Space B-E Gallery 3, 4F
60seconds Dosan, Lounge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여 기하학적 무늬로 고리 등을 엮어 만든 상자를 일컫는 채상(彩箱)은 가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조선시대에 옷·장신구·침선구를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양반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혼수품의 하나로 유행하였으며 폐백이나 혼수 등 귀한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산업화 이전의 우리 선조들은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빌어 삶의 근간을 만들어 왔다. 지금 우리는 결핍은 상실되고 아름다움과 편리함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자연과 사물에 대한 선조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더욱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윤희상재 Space B-E는 전통의 계승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쓰임과 변용에 대한 고민을 지속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보유자 서신정 선생님의 사적인 상자를 '침'을 모티브로 브랜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식스티세컨즈'와 함께 현대의 공간에 접목해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한다. 현대의 주거문화는 더 넓고 편리한 집에 대한 로망과 함께 수납공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 곁에 두고 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기술과 속도가 만들어 준 문명의 편리함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나만의 공간에 펼쳐질 내 마음에 집중해보면 어떨까?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최소한의 물건만을 둔다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걷어내고 비워내며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해 보는 시간을 통해 모두가 '침'을 허락받기를...

'복잡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순백 같은 아침의 마음'

'고단함 속 단비 같은 낮잠의 나른함'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가는 고래의 꿈'

Director 최주연 Jooyeon Choi

전시기간

2022. 6. 29(수) - 8. 10(수)

전시장소

윤희상재 & Space B-E, 식스티세컨즈 도산 / 라운지

참여작가

서신정·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보유자, 김영관·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전승교육사
김수연, 노산도방, 박경희, 분석하, 윤정희, 윤태성, 이도경

브랜드

몽중산다원, 사루비아 다방, 서소우, 식스티세컨즈, 온도

공동 기획

Space B-E x 식스티세컨즈



윤희상재
Space B-E



식스티세컨즈

Creator & Brand

Space B-E Gallery **B**

60seconds Dosan **D**

60seconds Lounge **L**

김수연 **B D L**

Kim Sooyon

공간을 나누거나 가리는 용도로, 또는 오브제로 활용하는 발은 가볍고 단순한 형태에 비하여 존재감이 크고 실용적입니다. 공간을 조화롭이 구획하고 연결하는 것에서 발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발은 LIMN ORIGINAL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작업입니다.

LIMN ORIGINAL은 김수연의 패브릭 작업을 소개하는 레이블로, 전통 바느질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작업하지만, 전통 공예를 넘어 현대적인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하 **B**

bunseokha

Image 'Quarter / Quadrant 사분면 개인의 고유 형상 표현을 목표로 세우기도 하며, 상응하는 이미지 생성과 그에 관한 니모닉 mnemonic (기억술) 코드의 발현 등 .. 기획에 의한 일괄된 의지 실현의 구조 생성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간 사용자의 시각이나 신체에 임의적(후천적) 습관, 구조적 동선 또한 중요시 하며, 공간 사용자의 정체성이 반영된 형태를 찾고, 일관성 있는 창작 행위로서의 결과를 생성, 목적입니다.

이도경 **B**

Lee Dokyung

내 꿈속에 동화처럼 다가온 아이들, 한 올 한 올 마음을 담아 이제 세상 밖, 모두에게 그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서소우 **B D**

SEOSEW

SEOSEW는 실(thread)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HANDWORK 기반의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 속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일회용 제품이 아닌 오랫동안 사용하며 느낄 수 있는 특별함과 편리함을 생각하며 제품을 제작합니다.

하나의 제품에도 다양한 소재의 원단을 매치하여 다채로운 컬러감과 다양성을 강조하였으며,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one and only 제품으로 나만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보유자 서신정, 전승교육사 김영관

B D L

Seo Sinjeong, Kim Youngkwan

채상(彩箱)은 다양한 컬러로 염색된 대나무로 엮어진 상자를 뜻합니다.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을 베이스로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수십 번 쪼개어 종잇장처럼 얇게 떠냅니다. 떠낸 대오리를 팔팔 끓는 솥에 넣어 염색하여, 수백 가닥의 대올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문양을 집수하며 엮어가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노산도방_이혜진, 홍성일 **B**

Nosan claystudio

이혜진: '나는 자연을 탐한다'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기를 그릇을 빚는 태도와 생각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결과의 아름다움도 자연스럽게 그려서, 사적인 공간에서 쓰임을 다하며 그 자연스러움의 힘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홍성일: 언제나 나의 작업은 가장 원초적이며 완전한 재료인 흙으로 발현되는 가장 익숙한 아름다움을 담아 내고자 함이며 지극히 개인적 감성으로 만들어진 기물들은 각각의 쓰임으로 그 가치가 온전하게 완성 되길 기대합니다.

윤정희 **B D L**

Yoon Junghee

섬유가 지니는 부드럽고 따스한 감각성에 주목하여 그것의 오브제화와 공간적 확장성을 시도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이루어진 구조적 오브제들은 공간에 온화한 힘을 불어넣는 매개체 이자 섬유와 공간의 경계 지점이 됩니다. 온기의 구조체들을 공간 전체에 개별 존재로 위치시켜 감성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온화한 감각과 감성의 체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몽중산다원 **B**

Mongjungsan Dawon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전남 보성의 몽중산다원은 1861년 김정호에 의해 완성된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대로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몽중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몽중산 다원의 녹차는 청정바다의 해풍이 보성 해안의 산자락을 타고 올라 안개로 바뀌는 몽중산다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남도의 바닷가 언덕에서 겨우내 농축된 제 몸의 수분으로 첫 싹을 틔운 우전과 작설 등 몽중산다원의 녹차는 한국의 특별한 맛을 지닌 차종의 차입니다.

식스티세컨즈 **B D L**

60seconds

60초 안에 잠들고, 60초 더 머물고 싶은 잠자리를 위해 하루의 가장 힘든 잠과 휴식의 가치를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긴 쉼에 필요한 매트리스와 침구를 기획하고 만들며,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는 짧은 쉼의 도구를 수집하고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가장 사적인 공간과 그곳에 함께 했으면 하는 최소한의 도구들로 흐트러진 마음을 나에게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고요한 쉼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경희 **B D L**

Park Gyeonghee

문양누비 중심의 디자인으로 통영누비와 전통공예를 계승하는 마음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12공방이 위치했던 통영지방은 현대에도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공예의 터로서 역사적으로 흔히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 고장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누비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장하였고 그 누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 땀 한 땀 걸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성 **B D L**

Youn Taesung

버블 시리즈 우리는 유리를 처음 시작한 99년도에 처음 해 본 버블 유리를 다양한 기물에 응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작품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유리의 패턴으로 변화시켜 컵, 볼, 접시 화병 등 여러 가지에 응용하여 유리의 투명함과 버블의 이상적인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유리의 아름다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루비아다방 **B**

Sarubia Dabang

사루비아 다방은 블렌딩 티를 만듭니다. 소재가 지닌 향미와 색깔, 모양, 질감 등을 이해하고, 주제와 정감에 따라 그에 걸맞는 소재들을 담고 혼합 해서 차를 완성합니다.

목을 축이는 음료의 기능에 충실하되, 차의 향미가 마음에도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온도 **B D**

ONDO

온도는 Self Awareness(자기 인식)과 Self-Love(자기애)를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인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온도의 제품들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거나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로, 감성과 정서를 따뜻하게 해줄 아이템들을 통해 마인드 풀한 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